"함께 가꾸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금강보호를 위해 다함께 실천해주세요!

- **버린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휴가철 대청호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가 주세요.

- **낚시와 불법 어획이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위협해요.**
-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방치된 축분은 부영양화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축분과 퇴비는 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비닐로 덮습니다.

-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금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세차, 가축방목 등의 행위로 금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을 줄여주세요.**
- **각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❶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야 세탁하고 세제를 적게 사용합니다.
❷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❸ 기름이 묻은 그릇은 닦아낸 후 씻어주세요.
❹ 각종 세제는 가능하면 친환경세제를 이용해주세요.

(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43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화 042)930-7340,1 | 전송 042)930-7342 | 홈페이지 http://www.daecheong.or.kr | 이메일 dch2004@naver.com

대청호 소식 2021 7+8월호 vol.130

함께 만들어가는 맑은 금강, 깨끗한 대청호

대청호 소식

vol.130
2021 7+8월호

금강유역 하천에서 만나는 물고기

미꾸라지

Misgurnus mizolepis, 미꾸리과

크기 몸 길이는 약 20cm이다.

체색과 무늬 몸 색깔은 황갈색 바탕에 등은 암청색이고, 배는 회백색이다. 몸통에는 작은 반점들이 흩어져있다. 중국산은 우리나라 미꾸라지보다 크고, 검은색을 많이 띤다.

주요형질 몸은 길며, 미꾸리보다 납작하다. 머리는 위아래로 납작하다. 입가에는 3쌍의 수염이 있는데, 3번째 수염은 눈 지름의 약 4배 정도로 길다.

서식지 하천 중·하류의 진흙이 많이 깔린 늪이나 논, 농수로에 서식한다.

먹이습성 잡식성으로 수서 곤충의 애벌레, 조류, 실지렁이, 유기물 등을 섭식한다.

행동습성 산란기는 6~7월이며, 수컷은 암컷의 몸통을 휘감아 조여 알을 낳도록 돕는다. 겨울철에 논에 파고 들어가 월동하는 습성이 있다.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하루에 1,000여 마리씩 먹어치워 모기의 천적이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눔과 연대로 상생합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한국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금강보호캠페인〉 가축분뇨 적정관리 요령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 빗물이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나 퇴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도랑을 설치합니다.
- 가축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뿌릴 때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합니다.
- 바뀐 가축분뇨법을 꼭 읽고 숙지합니다.